

주호영 “北 원전 의혹, 국정조사하자”…김태년 “이미 규명돼”

여야 원내대표, 임시국회 앞두고 박병석 의장 주재 회동
“원전 지어주려는 했던 의혹”…“상식적으로 추진 못해”
“국회에서 밝혀내야”…“청와대, 관련 부처에서 다 설명”

여야 원내대표가 1일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회동을 가진 가운데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서 충분히 해명했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김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산업부의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지 북한 원전 건설 문제가 드러났다”며 “서로 정치 공방만 할 게 아니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명백히 밝히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 측에선 실무자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것이

라고 하지만 국민들이나 야당은 판문점 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됐고 또 쉬는 날에 급히 들어가서 지은 사정이나 배경에 비추어볼 때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나 여당에선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 기반으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이 점을 명백하게 밝혀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법에 있는 특별감찰관

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도 장기간 공백이 있어 국회의 직무유기다. 조속히 임명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전 관련 건은 청와대와 관련 부처인 산업부, 통일부에서 매우 자세히 국민들께 다 설명했기 때문에 팩트로서 다 규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상식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을 이 시점에서 왜 야당이 문제 삼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라는 판단이 든다”고 했다. 이어 “그 문제는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이미 다 설명됐고 해명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박병석 의장은 “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박 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회동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게서 입장을 잘 설명했는데 원전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의 관계, 팩트의 문제니까 팩트를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시점에서 그게 지나친 정치 공방으로 흐르고 과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외 코로나나 민생 문제가 심각하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진상 규명해서 조속히 진정되는 것이 좋

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장은 “2월 국회에 정치적 쟁점이 있지만 코로나에 따른 민생에 있어서는 정치적 쟁점과 관계없이 잘 합의해줬으면 한다”며 “상반기에 의장이나 여야가 관심을 갖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려줬으면 한다. 그동안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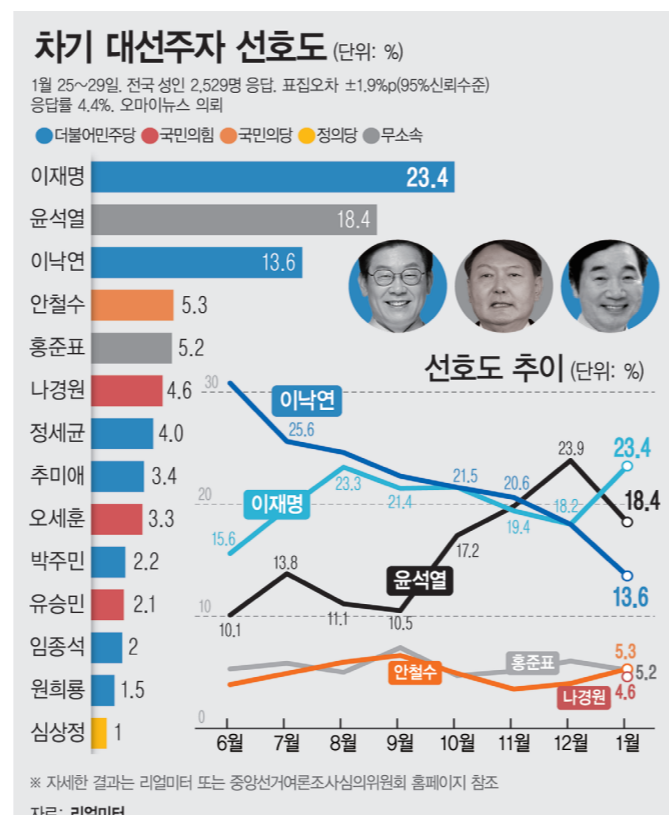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치고 ▲코로나19 대책 특위 구성 추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활성화 대책 마련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 기부 등을 의결했다고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 수석비서관이 밝혔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이재명 23.4% 오차범위 밖 선두

윤석열 18.4%·이낙연 13.6%…이낙연 9개월 연속 하락세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3개월 만에 20%대를 회복하며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 14인을 대상으로 한 2021년 1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지사는 전월 대비 5.2%포인트 상승한 23.4%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5.5%포인트 하락한 18.4%,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6%포인트 하락한 13.6%를 차지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포인트 오른 5.3%로 4위를 차지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0.8%포인트 하락한 5위, 나경원 무소속 의원 4.6%로 6위를 차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포인트

상승한 4.0%를 차지했다. 권역별로 이 지사는 인천·경기(30.0%)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부산·울산·경남(21.8%)과 광주·전라(22.1%)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호남권에서는 이 대표(21.2%)를 근소하게 앞서며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37.4%, 중도층 24.5%, 보수층 11.1%로 지지율이 모두 상승했다. 윤 총장은 대부분 계층에서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인천·경기(15.8%), PK(19.6%), 서울(18.5%)과 30대(16.6%), 70대 이상(16.8%), 중도층(20.7%), 보수층(28.7%)에서 낙폭이 두드러졌다. 이 대표는 9개월 연속 내리세로 특히 광주·전라에서 21.2%로 전월 대비 13.1% 지지율이 큰 폭으로



로 하락했다. 인천·경기(12.9%), PK(12.5%), 60대(13.6%)와 70대 이상(14.1%), 중도층(12.9%)과 진보층(24.0%)에서도 하락했다. 유승민·원희룡은 4.6%포인트 내린 40.4%로, 양 진영 간 격차는 0.6%포인트에서 9.3%포인트로 벌어졌다. 뉴스시스

범진보·여권 주자군(이재명·이낙연·정세균·추미애·박주민·임종석·심상정)의 선호도 합계는 47%포인트 오른 49.7%, 범보수·야권 주자군(윤석열·안철수·홍준표·나경원·오세훈·심상정)은 4.6%포인트 내린 40.4%로, 양 진영 간 격차는 0.6%포인트에서 9.3%포인트로 벌어졌다. 뉴스시스

김종인-중진의원, 내일 후보 단일화 논의…“한목소리 내야”

국민의힘 중진 비공개 회의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진들은 후보 단일화에 한목소리를 내기로 하는 한편, 오는 3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연석회의에서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 후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권성동·박진·김기현·서병수·이명수·홍문표·권영세 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야권 단일화 방안에 대한 중진 의원들의 입장을 모으기 위한 회동으로, 그동안 중진의원들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거론한 ‘국민의힘-안철수-더불어민주당’ 3자 구도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야권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었다. 뉴스시스

정 공관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했다. 여러 가지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는데 이 문제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져서 안 되는 거고, 아예 이 문제는 한목소리로 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오늘 결론 낸 것은 없다. 김 위원장과 연석회의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진의원 모임이 당 공식 기구 아니고 결론을 내는 기구도 아니다”라면서도 “김 위원장과 회동 때는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 당의 부인에도 지속해서 안 대표의 입당설이 나오는데 대해서 “안철수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는데 근거 없는 얘기가어서, 공관위원장님도 전혀 듣는 바 없는 얘기가”라며 “수요일(8일)에 그런 얘기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뉴스시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